

濟州島民謠의 分布와 風土

金 榮 敦

1

坡山前 溫平里에 처음 들린 것은 民謠 수집에 착수해서 四年째인 58年 겨울이었다.

이 마을에는 由緒 깊은 婚姻池란 못이 마을 北西에 양전히 자리해 있을 뿐, 단 村落에 비해 그렇다 할 特色이 있는 편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高良, 夫三姓始祖가 毛興穴에 솟아난 후 無人世之態에서 皮衣肉食과 遊獵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烏巾紅帶의 碧良國使者가 三王女를 데려와 三姓始祖에 바치자, 나이 차례로 이 세 雙이 何處之禮를 올렸다는 곳이 바로 이 溫平里(延婚浦, 閔婚浦)다. (註 1)

이참 晝飯하는 大學의 學生(溫平里出身)의 주선으로 그의 할머니 되는 분을 만났고 다짜고짜 民謠부터 請었다.

나이 꼭 여든이라고는 하나 성격이 元來 그래서인지 아예 데하는 품이 상냥스럽더니 가락을 돌구며 멧돌 방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감정을 넣어 가며 마치 신들린 양 연신 불러 짓는다. 이런 경우를 처음 대했기에 오히려 唐蕩한 筆촉은 받아 쓰노라고 사실 진땀을 뺐다.

가끔이던 記寫하다 再確認하노라고 中斷시키는 게 몹시 뜻아량한 表情으로(말을 끊어 明證을 비유) 있다라도 걸리지 노래가거나 記寫할 때, 記寫한 中斷의 原因은 中斷의 原因으로 結果를 알릴 수 있음은 말 할 것도 없지만 無意 100分을 알음 알지낸다.

허기야 이미 불렀던 民謠를 다시 끄내는 수도 있기는 했지만, 세

首 불러 그 중 한 수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記寫, 歸家 후 整理하고 보니 그날 所得이 100首를 좀 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자리에서 300餘首를 부른 셈이다. 참 놀랍게도 그 때까지 蒐集된 멧들방아노래 一種은 도합해야 400餘首쯤이었으니 이전에 이 老婆(康起寶)를 찾을 수 있었던들 두어 시간에 300餘首를 곧 確保할 수 있었을 것이오, 많은 時間과 經費와 勞力을 덜 쓸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멧들방아 노래를 標準한다면(濟州島 民謠에서는 멧들방아 노래가 全謠數의 절반이 넘으며 그 質로도 斷然 優勢하기 때문) 그때까지로는 南元面 爲美里, 朝天面 威德里, 濟州市 健入洞에서 그때도 꽤 많은 傳承者를 對할 수 있어(筆者 胎生地인 翰林邑 歸德里까지 포함해서) 은근히 好感마저 갖되었는데 溫平里의 이 대견스런 傳承者를 맞고 나서부터는 단 데를 찾는 게 무슨 애 장난처럼도 느껴져서 거의 달에 한번씩, 그러니까 이제까지 7,8회를 이 마을에 드나들었다.

康起寶 老婆가 간직하고 있는 民謠 가운데는 전혀 새로운 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마치 新發明에 興奮하는 科學者의 心情처럼 사람 미움을 즐겁게 하는가 하면 그 內容에 非凡한 것들이 續續 드러나서 그 동안은 마치 一攫千金의 幸運 속에 휩싸인 듯, 自身이 온통 이에 반해 버렸었다.

더구나 康起寶 老婆는 참 보배로운 傳承者이었을 뿐더러 훌륭한 口承文藝 鑑賞者이기도 해서, 말하자면 찾고 또 찾는 그 어간에 不斷한 推敲와 敷衍을 잊지 않았다. (이것은 참 정답고 고마운 일이었다.)

2

人間 文化財 康起寶 老婆를 발견하고 나자 筆者에게는 二重의

所得이 한꺼번에 몰려 든 셈이었다.

그 하나는 160餘首의 貴重한 民謠를 얻은 것이요, 또 하나는 濟州島內의 民謠 내지 民俗資料 分布에 대해 興味를 느끼게 된 점이다.

濟州島 民謠의 分布狀況은 어떠한가— 곧 어디에 民謠가 많으며 어디에 무슨 民謠가 특히 많은가, 그리고 그 民謠 分布狀況으로 보아 濟州島는 몇 區劃으로 分割 說明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물론 단순히 民謠 하나만을 놓고 말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濟州島의 地域別 自然地理와 人文地理 및 歷史上 行政區域 分割의 經路, 그리고 地域別 社會變遷過程이 자세히 밝혀지고 지금 現在의 産業, 宗教, 文化的 諸般實態가 統計數字上에서 明確히 提示된 것은 물론이요, 제주도를 몇 分割한 言語圈이 드러나고 民謠外의 巫俗, 說話, 家屋構造, 運搬方法, 農耕方法, 通過儀禮等 모든 民俗에 걸친 類似 特異性이 철저히 究明되어 가는 가운데 비로소 가능한 문제라고 느낀다.

3

아직 筆者는 濟州島 民謠의 分布狀況만을 조사할 目的으로는 踏査해 볼 餘裕를 갖지 못했다.

이 踏査에는 長期間이 所要될 것이요, 이 作業의 부피는 꽤 살찐 것일 줄 안다.

그러니까, 오는 이제 濟州島 民謠의 分布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하나의 커리커처, 아니면 한갓 序說적인 데 그칠 것을 말해 둔다.

溫平里가 깊숙히 사귀고 나서부터 筆者에 오는 하나의 暗示 비슷한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假說인데

濟州島는 東西로 나눈다면 東쪽이 더욱 民俗學的으로 興味있는 地域

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자면

濟州島에는 東半部に 더욱 民俗學的 資料가 豊富하다.
따라서 民謠역시 東半部に 더욱 많다.

——이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는 문제다.

4

그 根據의 첫머리는 꼬박꼬박 마을마다 돌리면서 蒐集의 徹底를 期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제까지의 蒐集 結果로 보아 아무래도 東半部に 民謠數가 혼하다는 사실이다.

뗏돌 방아 노래를 例로 든내도 (60首以上)

朝天面 威德里가 69首

翰林邑 歸德里가 71首

濟州市 五個洞이 95首

南元面 爲美里가 99首

城山面 溫平里가 169首

이니 筆者의 本籍인 歸德里와 居住地인 濟州市 五個洞을 제외하고 나면 威德里, 爲美里, 溫平리는 모두 東半部に 속한다.

여기 威德里에만 해도 夫 英敏氏 (女·56) 같은 優秀한 歌唱者가 있다. 이분은 그가 確保한 民謠 首數로는 康 起齋氏 (溫平里)와 전혀 대거리가 안 나지만 起齋氏는 康 起齋氏의 宗族에 〈오솔뜨기〉 〈이야흥〉 〈山川草木〉 〈달거리〉 〈뗏돌 노래〉 〈방아 노래〉 〈海女 노래〉 〈김매는 노래〉 〈타작 노래〉 〈망선 노래〉 〈양태 노래〉 〈行喪 노래〉 〈行喪 염불 노래〉 〈달구 노래〉 〈차장기〉 〈舊式 난방가〉 〈열처 후리는 노래〉 等 17種의 民謠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그 曲數로도 그렇거니와 起齋氏의 本籍인 溫平里는 濟州府의 南半部에서부터 시작해서 勞働中, 休息에 이르기까지 民謠의 蒐集者를 隨時 부르는데

것 뿐 아니라 부르되 능난하게 부른다.) 筆者는 아직까지 發見하지 못했다. 이 분은 同里의 金 在逸(女·73)氏가 더불어 民謡唱을 갖고 全國 民俗藝術大會에 參加한 바도 있다.

5

그 다음 濟州島를 답사하는 가운데 가장 興味있는 마을을 고르라면 筆者는 表善面 城邑里를 지적하고 싶어서, 城邑里는 表善面서 100분을 걸어 올라간 곳에 자리한 아늑한 고을이다. 漢拏山 이하 數 많은 산이 이 마을을 향해 주욱 뻗어 있는 게 風水地理的인 分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얼른 보아 이 산골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말하자면 實濟이 形成된 緣由와 오랜 동안을 縣廳 所在地로 選擇된 所以然을 알 수 있음직했다.

곧 지금의 濟州道는 15世紀初에서 5世紀間(A. D.1416--1913)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으로 三分 統治되었는데 漢拏山을 中心으로 山北(지금의 濟州市와 北濟州郡)은 濟州府이고, 山南(지금의 南濟州郡)은 兩分하여 西側邑 以東이 旌義縣, 山文面 以西가 大靜縣이었는데 城邑里는 旌義縣의 縣署 所在地였다.

이 마을을 뺀들러가면서는 <백약의 오름>(百藥岳) <새의 오름>(坐虎岳) <瀛州山> <개 오름>(狗岳) 등이 골쭉불쭉 솟았는데(註②) 그 이름들만 해도 무슨 由來談이 될지 있는 듯 같다.

漢拏山에서 發源한 川은이름은 이 城邑里를 끼고 가장 下川里로通하며 마을 문턱에 있는 <서거너못> <울린어못>은 물이 좀처럼 마르는 일 없어 里民들의 소중한 飲料水가 되는 한편 이웃 마을인 加時里에서도 건이다. 먹는 일이 있다. 그 傍에서 池州로까지 最古인 것이라는 노티나무 한 그루는 池州의 舊邑에서 千餘年의 古蹟이다. 이 마을의 悠久한 歷史를 알기에는 뜻 유하 시 있으나, 그 傍에는 한 老松 일대 그루가 樹抱(樹抱)에 그 傍에 福地 善壽山이라 하는 이

느티나무는 東쪽 가지에 먼저 잎이 돋으면 이 섬 東쪽에 豐年이
 들며 西쪽 가지에 먼저 잎 돋으면 西쪽에 豐年, 그리고 東西쪽이 한
 겨번에 잎 돋으면 온섬이 豐年을 맞는다는 얘기마저 감돌고, 맨 東
 쪽의 팽나무 밑둥에는 淨化水가 고여 있는데 眼疾治療의 効驗도 있
 다는 俗信마저 이 물에 감돌아 興味로웠다. (이 느티나무 한 그루
 와 소나무 일곱 그루는 지난해 天然紀念物로 指定되었다. 161號)

이 太古然한 마을을 筆者는 '5)年 여름과 62年 겨울, 두번을 訪問했었다
 表善里서 두시간을 暴陽과 싸우며 처음으로 城居里 마을 어구에
 이르렀을 때는 뿌우연 저녁 연기가 아늑히 피어 오르는데 어디선가
 <거기요랑 사디야> 김매는 노랫 소리가 유창히 흘러와 자신을 좀 느
 겁게 했다.

찾아가 보니 50名 남짓이나 되는 男女老少 農軍들이 밭 구석에
 서 구석까지 나란히 앉아 김매는 모습도 壯觀이었지만 멋진 가락
 이 作業과 함께 흘러나오는 光景을 筆촉로서는 처음 對面한 것이
 었다. 제주도가 民謡의 섬이라지만 作業은 남았어도 그 勞動謡는 잊
 어져 가고 있으며, 단 마을서는 너댓이 품앗이하며 김매는 것이
 보통이니 이 情景은 분명 하나의 驚異였던 것이다.

그날 밤 50歲 이상의 男女 傳承者를 몇 모이고 民謡를 請졌을
 때, 그 驚異는 더욱 부풀어 가면서 筆者를 놀려 왔다.

그것은 살갓이 쭈그러진 老婆들인데도 참 술도 잘 마시고 담배
 도 잘 피우는가 하면, 노래도 잘 부른다는 점에서다. (뒷날에야
 안 일이지만 술, 담배는 젊은 아낙네들도 대충 잘했다.)

謡 ① ▲ 도리 손당 큰애기넬은
 피 방에 장기 일수여마는
 정의꼴의 큰애기넬은
 담뱃 먹기 일수로고나

(朝天面 威德里 女53 夫英敏唱)

譯, 橋來 松堂 큰아기들은
 피 방아 쟁기 일수네마는
 城邑뎬의 큰아기들은
 담배 피기 일수로구나

城邑里 아낙네들이 담배 잔 피운다는 게 (단지 담배만을 잔 피울 뿐더러 唯獨 活潑, 積極的임이 운동 시 표현에 內包되었다고 믿어진다.) 民謡에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 실 안에서 퍼 有名해 온 마을이다.

橋來, 松堂은 城邑서 淡擎山 건너 맞은 쪽이어서 두메산골을 말할 때 標本처럼 늘 등장돼 왔다. 그 生活 程度가 만 山村과 유별나게 窳乏한 편도 아니지만 지금 상당한 規模의 濟州牧場이 이 松堂에 있 듯이, 말하자면 옛부터 放牧場으로 유명해 왔어서 마소나 치는 가난한 마을로 관념되어 온 터이다.

산너머의 城邑은 500년이란 긴 歲月을 縣廳 所在地로서 그 地方民의 衿持는 나날이 衡天해 갔었으리라 가히 짐작되며 萬能의 官吏들을, 또한 官吏의 주변 人士들을 접내하노라고 酒肆와 妓女들이 많았을 것은 물론이요, 遊興하는 가락이 城邑街구에 항시 넘쳐흘렀을 것이요, 住民들의 生計手段도 늘 풀렸었을 것이다.

濟州 巫神의 元祖인 <백주할망> 과 <소로소천국> 의 神話마저 감도는 松堂은 4.3事件으로 마을이 全燒되다시피 했었지만 지금 실정으론 오히려 城邑보다 낫다 할 수 있겠으나 士農工商의 階級觀念에 젖어 있었던 당시로는, 더구나 官吏의 行悖가 제주도에선 極心하기만 했던 탓으로 퍼 팔시 받아 왔을 것은 쉬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松堂의 상신호(女70)란 靑簪은 傳承者인 경우, 그분의 친정은 城邑인데 松堂서 強力히 求婚하자 그럼 縣監이 타는 가마를 빌려 모셔 가리고 條件附 許婚하매 드디어는 縣監의 가마 타고 시집 왔다는 本人의 回顧談으로서도 곧 짐작이 간다.

華奢춤은 다 가셨지만 그 餘韻은 아직도 이 古都城邑에 번져 흐르는 듯이나 야구이들이 술, 담배와 노래를 잘하고 리 陽性을 미치게 될 줄 안다.

그러니까 民謠 역시 歌詞의 內容보다는 唱에 뛰어나고 그 謠種은 <龍天劍> <봉지가> <觀德亭앞> <개구리타령> <梅花타령> <山川草木> <오돌토기> <중타령> <연변가>等 酒宴歌 (Drinking Party Songs)가 爲主였다. (이것들은 따져들면 거의가 제주도 固有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本土에서 流入 定着된 것으로 짐작된다.)

於此後, 三縣의 都邑地 가운데서도 이 城邑만이 그 餘韻을 넉넉히 간직해 있음은 우리에게 큰 興味를 던지는데 이는 또한 <濟州島는 東半部에 더욱 民俗學的 資料가 豊富하다>는 假說의 根柢 根據로써 提示하고 싶은 것이다.

6

셋째로는 <큰아기 놀이>를 두고 그 根據를 찾아 보기로 하자.

謠 ② 두리 손달 큰애기덜은

가죽감태 모호로 쓰꼭

되 방에 지레 다 나간다

서목골에 큰애기덜은

뚝 밭설 홀트레 다 나간다

성안골에 큰애기덜은

양대청으로 다 나간다

밧대 밧개 고리방 밧은

진실문어도 이날리진지

치만 입어도 선반을 지리

신을 신어도 가막 창신

벨도대에 큰애기덜은
 탕전칭으로 다 나간다
 함덕대에 큰애기덜은
 신작부비기로 다 나가꼭
 조친대에 큰애기덜은
 망근칭으로 다 나가꼭
 점녕 월정 큰애기덜은
 좀수질흐레 다 나간다
 애월 한림 큰애기덜은
 구물 틀기 다 나가꼭
 도도 백계 큰애기덜은
 모죽 틀기 다 나가꼭
 청수 닥마를 큰애기덜은
 술기 소리로 다 나간다
 대정 근망 큰애기덜은
 자리 짜기로 다 나간다
 정의 산앞 큰애기덜은
 길삼 배로 다 나간다

(濟州市 健入洞 女 63 金遠永母 唱)

譯, 橋來 松掌 큰애기들은
 ※〈기죽 감태〉 옆으로 쓰고
 의 방아 찧으려 다 나간다
 ※※四門迺에 큰애기들은
 , 태지 창자 들으려 다 나간다
 ※※濟州市內 큰애기들은
 涼太邑으로 다 나간다
 新興 北村 高吏房들은

※※※※ <전지> 머털 없이도 <이날떠 전지>

치마를 입어도 歡환물 치마

신을 신어도 검은 <창신> ※※※※※

禾北 地方 큰아기들은

宕巾廳으로 다 나간다

咸德 地方 큰아기들은

신총 비비기로 다 나가고

朝天 地方 큰아기들은

網巾廳으로 다 나가고

金寧 月汀 큰아기들은

海女질하러 다 나간다

涯月 翰林 큰아기들은

그물 짜기 다 나가고

道頭 梨湖 큰아기들은

帽子 짜기 다 나가고

清水 楮楮 큰아기들은

줄무 노래로 다 나간다

大靜 近方 큰아기들은

돛자리 짜기로 다 나간다

旌義 山앞 큰아기들은

길삼 배로 다 나간다

※ 김승의 털 가죽으로 만든 防寒階의 하나.

※※ 저금의 西門 五日市場을 말하는데 西門 바깥에 해당 되었음. 당시 西門은 濟州劇場 入口인 비거리에 있었으니까.

※※※ 당시 東西陸門 인을 城內(성안)라 했었으니 觀德亭을 지은한 저금 제주시기의 一畝先民이 해당됨.

※※※※ 커다랗게 엮은 머리 모양의 하나.

<이날머 건지>는 <건지>머리의 一種.

※※※※※ 가죽 신의 一種으로서 밑창 걸 바닥에 징을 박고 운두는 얇고 코는 뾰족 내밀었음.

<큰아기 풀이>란 各郷土 處女들이 돈벌이 나가는 노래다. 全國到處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濟州島에게 가장 낫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濟州島 婦女子들의 철저한 勤勉性의 탓이다.

우선 이 노래에 등장된 고을을 가만 보면 역시 西半部보다 東半部가 많다. 그리고 西半部에 등장하는 作業은 그물짜기(涯月, 翰林), 모자 짜기(道頭, 梨湖), 돛자리 짜기(大靜), 풀무 노래(清水, 楮旨) 등 가볍고 거칠 것 없는 家內手工業 따위다. 이것 역시 東쪽에 비해 西쪽이 그래도 農土가 조금은 기름져서 生活에 餘裕 있다는 증거일 줄 안다.

가령 濟州島를 찾아 든 外來客이 있어 島一周를 계획하고 西廻의 車를 탔다고 하자.

濟州市를 출발해서 高山里까지는 비록 들담으로 에워싸인 장난감 같은 다랑이들의 行列이긴 하나 그래도 별 變化 없이 잇따르는 바깥 風景을 내다볼 때 漢拏山은 아득히 멀어만 보일 것이요, 그 漢拏山 줄기에 꽤 질펀한(자그만 섬으로서는) 農土를 볼 것이다. 줄곧 高山까지는 기껏해야 瓮浦를 지나 挾才쯤에 이르면 바다가 너무 다가있고 一周道路邊에 펼쳐진 밭들이 대체로 모래 沙場인데서 쭈뼛말라 보일 뿐, 나머지는 마을마을이 바닷바닷이 穩當함을 느낄 줄 안다.

飛行場이 자리한 <정뜨르>처럼 확트인 農土를 下賞서, 그리고 洙源리 <구름이> 역시 다시 찾을 것이며 高山리 이르러 高山里에 펼쳐진 평평검한 平野를 보면서 가슴은 원히 트일 것이다.

慕悲浦를 지나면가부터 仁濟山을 출발 仁濟山까지 山野는 숲 우거진 불판이 一周道路 가짜리까지 펼쳐 있음에 直面하자

이제까지 간직했던 어느만큼의 餘裕마저 잃은 채, 住民의 生活을 생각하면서는 焦燥해지기도 할 것이다.

바다로 달리면서 짝아지른 듯 불쑥 솟았다 만 바닷가 바위들도 꽤 異色的이거니와 돌무더기가 傷處처럼 불쑥불쑥 솟은 다랑이들을 보며 네마름과 가난을 實感하다가도 조용히 가라앉은 湖水처럼 잔잔한 바다 빛갈과 安樂 椅子에 푹 들어앉은 듯한 安定感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西歸浦에 이르르면 풍겨오는 南國의 情趣를 名勝들과 더불어 느끼면서 참 가까이 손짓해 보이는 漢拏山의 모습에는 變함 없으나 그 주변인 法還, 東楸, 西楸, 西好, 新峯, 下孝등의 깨끗이 거름진 農土에서 어느만큼의 餘裕는 되살아날 것이다.

南元, 表善을 거쳐 城山에 이르는 사이 기름기 없는 農土의 連續에서 그 척박하기가 募瑟浦~西歸浦보다 오히려 더해 보일 것이다.

城山浦에 이르면서 漢拏山은 다시 멀리로 달아나 버리고 말지만 車道까지 내리드러온 漢拏山 줄기는 荒涼한 風景을 보여 주는가 하면 生活을 위해 나날이 더욱 焦燥한 듯 보이는 住民의 表情이 적어도 威德에 이르기까지에 손님을 짓누르는 것이다.

傳說에 얽힌 金寧 뱀굴을 보고나서 臥屹巖까지 이것 저것이 다 굴인 듯 온통 굴로만 뒤덮인 것같은 이 기질은 地帶는 마치 腫氣를 너무 많아 더덕더덕 흠집만을 남긴 어린애 머리를 聯想중계도 될 것이다.

海岸線을 따라가며 불쑥불쑥 솟은 海藻類의 露積들이 異色的으로 보일 것이며 그게 한참 入漁期라면 <태삭>과 <망시리>, <징계호미> 따위를 들고 海女服으로 武裝한 海女들의 싱싱한 팔다리가 더욱 눈에 띌 것이다. 細花, 漢東, 月汀을 거치고 金寧, 東福, 北村을 거칠 때까지 일련 情景에는 變化가 없을 것인데 威德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거름진 農土를 展望하면서 좀 裕足한 느낌을 되찾게 될 것이다.

於此彼 濟州島의 東半部는 西半部에 비해 더욱 瘠薄한 眞 事實

이다. 따라서 東半部の 住民이 더욱 시달려 왔을 것은 물론이요, 큰아기들 역시 거칠은 일을 감당해 있어야만 한 것이다.

일제기 말했던 松堂이 역시 橋來와 함께 <큰아기 풀이>에도 맨 처음 등장했다. 於此彼 그것은 松堂, 橋來가 제주도 농촌 가운데도 그 實狀 이상으로 窮乏의 본보기처럼 예기하기를 좋아하는 데서다. 이 松堂, 橋來 지방을 중심으로 피(稗稗)농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피 농사는 비단 이 지방뿐이 아니라 舊左, 城山, 表善 三面의 山間地方에는 거의 마을마다 이루어졌었던 것인데, 이것 또한 東半部の 農土가 더욱 떠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證據다.

땅이 더욱 덜 기름지기 때문, 자연히 住民들은 더 악착스릴 수밖에 없으며 生活手段을 위해 萬難을 이겨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農事 以外の 田 作業에 더욱 熱을 쏟는 것이니 그 하나로 海女 作業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海女 作業 역시 東쪽이 더욱 甚하다. 이 노래에서도 海女 作業의 代表地域으로는 金寧, 月汀을 등장시켰다.

만약 5月 中旬쯤 해서 金寧 마을을 찾는다면 길 거리로, 들로, 마당으로, 새끼밭게 미역이 덮여서 밭 밭을 틔조차 없어 당황하게 될 것이다. 天地가 온통 미역 세상인 듯, 미역의 燦爛한 示威속에 누구든 어리둥절해 가고 말 것이다. 東, 西金寧 합쳐서 人口는 4,091名인데 (註3) 海女 數는 公式 統計만 해도 그 4分之1인 1,000名을 훨씬 넘는다. 5月初, 中旬에서 約 3週間, 소위 <미역절>이 돌아오면 부락민들은 男女老少 없이 總動員해서 미역 採取에 신들린양 한참 법석인다. 어머니와 이낙은 캐고 아들과 남편은 지나른다. 미역을 진 까만 行列이 길을 온통 뒤덮는다. 그래서 3週 間이면 海女 1人當 日均 6,000원의 수입을 올린다. 불과 3週에 6,000원의 收入이던 金寧이 이러한 農家로서는 참 대단한 것이다.

래마다 慶尙北道의 大嶽浦를 비롯해서 鬱陵島와 黃海道, 江原道等 地로 移하는 海女數가 이 金寧里에서 年도 150名을 넘나드는가

하면 解放前 日本까지 出稼했다가 그대로 日本에 定着해 버린 海女 數도 金寧里 出身인 100餘名은 되리라는 것이요 이들은 해마다 고향의 父母妻子들에게 生活費를 부쳐 온다는 것이다.

또한 金寧里 出身 在日僑胞 가운데는 致富한 분들도 꽤 많다. 해서, 金寧里의 農土는 섬 안에서 最高價다

만약 金寧里가 좀 덜 메말랐던들 덜 離鄉했을 것이며 덜 成功했을 것이다. 精薄하기 때문 목숨 걸고 일해야만 산다는 哲理가 더욱 몸에 배었을 것이며 離鄉했어도 成功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臆測일까.

如何間 金寧里民의 勤勉性은 섬 안에서 最 話題에 오른다. 들 일 나간 農夫의 얼굴에 거미줄이 안 치이면 不誠實하다거나 (일찍 일어나 들일 나가야 한다는 뜻) 海女질할 줄 모른 색시는 金寧里서는 出嫁할 수 없다거나 하는 얘기는 옛부터 꽤 퍼져 있다.

제주도민이 부지런하고 제주도 婦女子의 活動力이 두드러지다 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東半部의 도민, 東半部의 婦女子가 더욱 勤勉하고 악착스러운 것, 또한 事實이다.

7

앞엿 노래에서 보면 濟州市內 (옛날 東西南北門內에 속했던 지금 濟州市街의 一部分)에서는 涼太 짜기가, 別刀 地方(采北)에서는 宕巾 짜기가, 朝天 地方에서는 網巾 짜기가 盛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李朝 初, 中葉에 輸入됐으리라 추측되는 이 家內 手工業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涼太 짜기 ~ 三陽洞(濟州市), 濟州市內, 新沙里(朝天面)等地.

網巾 짜기 ~ 朝天里, 成德里(朝天面)地.

갓모자 짜기 ~ 禾北洞, 老衡洞(濟州市)等地.

宕巾 짜기 ~ 禾北洞(濟州市)等地.

이처럼 지금의 濟州市街에서 비롯하여 東쪽으로 禾北, 三陽, 新村, 朝天을 거치고 威德까지에 가장 盛行했었음을 말해 준다. 지금도 三陽원 가 보면 農閑期를 이용해서 두세 집에 한 집은 양태 짜기에 熱을 올리는데 平均 1人 1日當 50원의 收入可라는 것이니 中高校까지의 子弟들 學費는 그럭저럭 마련되는 듯 싶었다. (生産品은 주로 忠淸南北道로 輸出된다는 얘기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어저씨 양태, 망진, 탕진, 갓모자 作業이 濟州市街에서 威德 사이에 주로 번졌겠느냐는 것과,

둘째는 이에 따른 民謠도 자연 이 地帶에 흩어져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濟州島民謠의 謠別 分布實績은 어떤가의 문제다.

첫째 문제의 解答은 우선 濟州市街에서 威德 사이가 古來로 濟州島의 窓口가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確實한 年代는 아직 考證할 수 없는데로 지금의 山地港(健入浦, 山底浦)이 本土와의 唯一無二한 出入口가 되기 앞서(註④) 오랜 歲月을 朝天浦와 禾北浦(別刀浦)는 本土와의 出入에 主要한 關門이 되어 온 것이다.

중에도 朝天浦는 別刀浦 이상으로 중요한 浦口가 되었었던 것은

①朝天城(둘레 428尺7寸, 높이 9尺1寸)內에 懋北亭(1590~1599年 사이에는 雙龍亭이라 稱했었다.)이란 客舍까지 마련될 만큼(註⑤) 中央의 官吏들의 來往이 빈번했었다는 사실.

② 下船했던 본들이 갈려갔던 地點이라는 <分船동산>(지금의 朝天支署앞)이란 地名까지 남아 있으며 當時 下船光景을 傳承하는 이

들이 있다는 사실.

③ 얼마나 빈번히, 그리고 大規模로 下浦였던지 威德에 있는 〈서도봉〉(屏山岳 높이 112m, 1706年 丙戌, 肅宗 32年 봄에 牧使 宋廷奎가 여기에 牧場 西山場을 마련했다 한다.)에 임시 마소를 놓아 두었다고는 사실.

④ 朝天里 중심으로 名士가 續出했었다는 사실.

等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 ④의 理由로는 新村과 朝天 峯에 竹島가 있고 이 竹島가 卍狀 모양이기 때문 文章과 高官이 많이 난다는 風水地理的 解釋도 내리거니와 如何間 名士, 名官이 쏟아져 나왔었음은 도민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三·一運動 當時에는 松竹梅 三人決死隊가 先鋒 서고는 獨立萬歲를 불렀었다는 〈萬歲동산〉까지도 지금 朝天里에 남아있지만(註⑥) 이런 까닭으로는 如何間 中央과의 交涉이 빠르고 빈번했었다 함을 우선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에도 朝天 出身들은 대체로 自尊心과 矜持가 유별스리 드세다는 理由도 된다. 어쨌든 양태, 망건, 탕건, 갓모자 등도 普及과 生產品 輸出이 便利하다는 데서 이 주변에 번졌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아울러서 노래되고 있는 바 北村, 新興의 營吏房 딸이 얼마나 華奢로운 冶裝을 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島內 處女들의 羨望의 的이 되었겠느냐의 문제도 끝 이해할 수 있다.

이러저러 얘기는 하다 보니 〈濟州島는 東半部에 더욱 民俗學的의 資料가 豊富하며 民謠 역시 東半部에 많다〉는 假說은 조금씩 근거 있는 말이, 돼 가는 듯 싶다.

또한, 여기서 덜 수 없는 것은 兎山에 관한 것이다.

表善面 兎山에는 〈兎山 본풀이〉로 說話 解説되고 있는 有名한 信仰이 있어 이게 規律하는 그 重疊은 자못 큰 것이다. 시각하면

너무 장황하니 자세한 것은 두어 두기로 하지만, 이 뱀 信仰으로 해서 兎山 아낙네들이 입어온 被害는 莫大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兎山 색씨는 他里로 出嫁하더라도 뱀 귀신이 따라와서 잘 안 모시면 탈이 난다는 막 질색인 內容이다.

그리고, <도깨비 귀신>이니 <七星술>(터신)이니 하는 民間信仰도 역시 東쪽에 많고 복잡하다.

8

이제는 角度를 돌려서 濟州島 民謡의 謠別 分布 狀況을 알아보자.

濟州島內 어느 地方에 무슨 노래가 많으며 어느 地方에 무슨 노래를 찾아볼 수 없는가.

이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우선 濟州島 民謡가 外國 혹은 本土의 그것에 비해 어떠한 種類上 特色을 지니는가는 문제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筆者는 前에 種類로 본 濟州島 民謡의 特色을 다음 몇지로 요약해 본 일이 있다. (註⑦)

- ① 勞動謠가 압도적으로 많다,
- ② 女謠가 大部分이다.
- ③ 本土 民謡에 비해 類似謠가 드물다.
- ④ 情戀謠, 舞蹈謠, 動植物謠 및 타령等 陽地의 노래들이 드물다.

우선 濟州島 民謡라면 그 80%強이 勞動謠다. 물론 이것은 濟州島 固有의 것에 치중한다는, 말하자면 오리지날리티를 徹底히 문제 삼는다는 基準에 따른 것인데 이 基準이 누그러진다면 그 누그러지는 정도 여하에 따라 이 퍼센테이지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아무래도 濟州島 民謡에서는 勞動謠가 大半이요, 實로서도 단연
 우수하기 때문, 筆者 愚見으로는 우선 <勞動謠> 와 <勞動謠 이외의 노
 래> (<타령類> <童謠類>)로 分類하는게 타당하리라고 느껴온다)

이야기의 進展을 위해 갖고 있는 資料를 筆者 나름으로 分類한
 그 一覽을 提示해 본다.(總 1403首, ()內는 首數)

I 勞 動 謠 (1142)

一, 밧 들 밭 아 노래 (815)

- 1, 밧 들 노래 (18)
- 2, 밭 아 노래 (25)
- 3, 自主 勤 勉 의 노래 (74)

A. 自主 (28)

B. 勤 勉 (24)

C. 生活 苦 (22)

4, 八 字 恨 嘆 의 노래 (121)

A. 八 字 (40)

B. 恨 嘆 (71)

5, 사랑 과 원 한 의 노래 (166)

A. 아버이 사랑 (35)

B. 어머니 사랑 (35)

C. 형제 사랑 (11)

D. 자식 사랑 (6)

E. 이웃 과 의 사랑 (7)

F. 임 사랑 (40)

G. 원 망 과 저 주 (32)

6, 시집살이 노래 (96)

- A. 시집살이의 苦衷 (25)
- B. 시집에서의 虐待 (7)
- C. 시집으로 가는길 (7)
- D. 시집 家族 (25)
- E. 시누이 (5)
- F. 시어머니 (16)
- G. 시집觀 (11)

7, 집안 노래 (117)

- A. 結婚 (30)
- B. 지어미 (11)
- C. 이붓어머니 (12)
- D. 妾 (15)
- E. 시앗 (8)
- F. 과부 (6)
- G. 자식 (17)
- H. 외로움 (18)

8, 簪世의 노래 (57)

- A. 簪世 (18)
- B. 世情 (13)
- C. 말성 (14)
- D. 嘆老 (12)

9, 꿈의 노래 (87)

- A. 꿈 (16)

B. 서울	(16)
C. 兩班	(6)
D. 선비	(8)
E. 中庸	(16)
F. 自慰	(6)
G. 發散	(19)
10, 說話의 노래	(7)
11, 風土 노래	(47)
A. 地理·歷史	(34)
B. 風俗	(13)
二, 海女 노래	(199)
1, 海女作業出發의 뱃노래	(16)
2, 海女作業의 노래	(38)
3, 海女出嫁길의 뱃노래	(64)
A. 出發	(5)
B. 노치는 氣魄	(29)
C. 배와 뱃사공	(9)
D. 出嫁하는 뱃길	(15)
E. 出嫁의 目的	(6)
4. 海女出嫁生活의 노래	(19)
5, 사랑 노래	(37)
6, 海女の 餘情	(25)
三, 김매는 노래	(44)
四, 타작 노래	(29)

五, 망건 노래 (6)

六, 양태 노래 (6)

七, 밭 밟는 노래 (18)

八, 꿀 베는 노래 (8)

九, 멸치 후리는 노래 (6)

十, 其他 勞動謠 (12)

1, 흙덩이 바수는 노래 (3)

2, 나무 깨는 노래 (1)

3, 나무 베는 노래 (3)

4, 나무 켜는 노래 (1)

5, 베틀 노래 (2)

6, 땅 파는 노래 (1)

7, 탕건 노래 (1)

I 타령類 (109)

十一, 옛타령 (27)

1, 오돌또기 (6)

2, 이야홍 (10)

3, 山川草木 (5)

4, 봉지가 (6)

十二, 雜謠 (41)

1, 雜謠 (30)

2, 날거리 (11)

十三, 輓 歌 (41)

1, 行喪 노래 (36)

2, 달구 노래 (5)

Ⅱ 童謠類 (152)

十四, 童謠 (121)

1, 짐승과 벌레 노래 (57)

A. 평 (7)

B. 까마귀 (3)

C. 소리개 (4)

D. 잠자리 (6)

E. 개똥벌레 (3)

F. 새一般 (5)

G. 사슴 (1)

H. 거미 (4)

I. 뱀 (3)

J. 방아깨비 (3)

K. 개 (4)

L. 생선 (5)

M. 조개 (3)

N. 其他 (6)

2, 애를 놀리는 노래 (11)

A. 머리 깎은 애를놀리며 (3)

B. 이 빠진 애를 놀리며 (5)

C. 울던 애를 놀리며 (3)

3, 놀이하는 노래 (22)

- A, 보리피리를 만들며 (3)
 - B, 쇠비름 뿌리를 두드리며 (4)
 - C, 풀각시 머리를 땅으며 (4)
 - D, 늪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4)
 - E, 몸에 물기를 떨며 (1)
 - F, 즐놀이 하며 (4)
 - G, 흙밥 놀이 하며 (2)
- 4, 비 노래 (5)
 - 5, 원님 놀이 노래 (4)
 - 6, 其他童謠 (22)
- 十五, 자장가 (24)
 - 十六, 語戲謠 (6)

이상은 勞動謠 爲主의, 다시 말하면 수반되는 作業이 있을 경우 그 民謠 內容이야 어떠한 간에 그 作業謠 속에 무작정 끼어 넣는 分類方法을 채택한 것이다. 勞動謠가 그 質, 量으로 봐서 유별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基準을 취한 것인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 基準如何에 따라서는 謠種別 부피가 大幅 전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例들어 <一, 밭돌, 방아노래> 가운데의 <3, 自主勤勉의 노래> 이하와 <二, 海女노래> 속의 <5, 사랑노래> 같은 것은 勞動謠에서 고려내어 새 項目을 設定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 더 蒐集作業을 계속 한다면 <Ⅰ타령類> 서의 특히 <十二, 雜謠> 와 <Ⅲ 童謠類> 쪽에서 좀 불어날 줄 아는데 제주도 민요의 순수성을 고이 지키려면 이젠 별로 所得될 것 없는 일일 것이다.

如何間 제주도 민요의 謠別 分布 一覽을 얼른 보아도 勞動謠의 絶對 優秀라는 사실 말고도 몇 가지 문제가 튀어나올 줄 알거니와

(앞에 列擧한 바 4個項目에 대해서는 <제주도> 9號 參照) 다음으로 미뤄두고 이 民謠들의 地域別 分布 狀況을 따져볼 제제에 이르렀다.

9

濟州島 民謠의 地域別 分布 狀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濟州島 民謠 分布圖>를 소개한다.

이 分布圖는 濟州島 民謠의 分布 그 자체를 말해 주는 게 아니라 筆者가 蒐集 整理한 資料를 대상하여 그 傳承者의 住所別로 통계를 내 본것에 不過하다. 예들어 <輓歌> (M)의 分布는 分布圖上으론 濟州市 五個洞서 3首, 三陽洞서 24首, 安德面 德修里서 1首, 舊左面 漢東里에서 1首, 朝天面 威德里서 12首, ——해서都合 41首요, <꿀베는 노래> (H)는 濟州市 我羅洞서 4首, 老衡洞서 2首, 翰林邑 歸德里서 1首, 舊左面 漢東里서 1首, ——하여 都合 8首인데, 그럼 <輓歌>는 威德 三陽이나 濟州市 五個洞, 아니면 德修 漢東等地에만 있고 <꿀베는 노래>는 我羅, 老衡, 歸德, 漢東等地에만 殘存되어 있으나 하면 萬不當한 얘기다. 어찌어찌 이 等地에서 이런 노래들을 入手했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分布圖는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하나의 參考가 될 뿐이다.)

해서 濟州島 民謠의 分布 狀況 자체에 대한 얘기는 새로이 시작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濟州島 民謠의 核心인 勞動謠 부터 말해 보자.

勞動謠(work songs)란 말할 것도 없이 勞動에 따른 민요이기 때문 그 勞動이 있는 곳에 그 노래도 있기 마련이다. (그 現存 與否와 多寡는 물을 것 없이)

일찌기 말해 온 망건, 양태, 탕건 作業은 반드시 지금의 濟州市 五個洞에서 東쪽으로 三場, 新村, 朝天等地에 국한 되지 않았더라도

제주도 全域으로 못 번졌던 게 分明하며, 海女는 원래부터가 바닷가 마을인 一周道路邊에서 낚고 자라기 마련이니 (두메 마을에 태어났더라도 그 住所만 바닷가로 옮겨 살면 海女 못 될 수야 없겠지만)

〈海女 노래〉는 자연 두메 산골에 있을 수 없다. 〈몇치 후리는 노래〉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勞動謠는 그 勞動이 全域에 있을 수 있기 때문 그 노래 역시 濟州島 어디서든 대체로 들을 수 있는 것 들이다.

다음 타령類로 옮겨 가서 〈晚歌〉는 지금 어디서나 行喪하고 葬禮 치르는 경우면 어렵잖게 들을 수 있는 민요다. (손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代表된다 할 것이다) 〈오들또기〉 〈이야흥〉 〈山川草木〉 〈봉지가〉 등의 옛 타령과 〈雜謠〉 〈달거리〉 따위는 옛적에 치올라 가면 온 섬 구석구석 마다 번졌었는지 모르는 대로, 지금 農漁民 들 마다 모두에게는 親熱중지 못 한 것 같고 대체로 좀 風致있는 生活을 해 왔거나 이런 雰圍氣가 오래 무르 익었던 마을 (예들면 앞서 말한 城邑里 같은 마을) 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 옛타령들은 역시 濟州島 民謠에서 그 멜로디로 대표되기 때문 메스콤을 타고 꽤 普及되다 시피 해서 젊은 世代에서도 널리 알고들 있지만 이걸 別題로 치고)

나머지 童謠와 자장가 語戲謠는 全島에 흩어져 있다.

해서 濟州島 民謠의 謠別 分布 狀況을 다음과 같이 三分해서 종합 해 본다.

A. 濟州島 全域에 散在해 있으면서 現在 들을 수 있는 것

- I 勞動謠
- 一, 멧돌 방아 노래
 - 三, 김매는 노래
 - 四, 타작 노래
 - 七, 밭 밟는 노래
 - 八, 풀 베는 노래

十, 탕건 노래를 除外한 其他 勞動謠

I 타 명 類 十三, 輓 歌

II 童 謠 類 十四, 童 謠

十五, 자 장 가

十六, 語 戲 謠

B. 濟州島 全域에 散在해 오면서도 곳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

I 타 명 類 十一, 옛 타 명

十二, 雜 謠

C. 濟州島 一部 地域에서만 傳承되는 것

I 勞 動 謠 二, 海女 노래

五, 망건 노래

六, 양태 노래

九, 멸치 후리는 노래

十, 其他 勞動謠中 탕건 노래

10

이제까지 筆者는 濟州島 民謠의 分布에 대하여 두 가지 얘기를 해 왔다.

하나는 <濟州島에는 東半부에 더욱 民俗學的 資料가 豊富할 듯하며 民謠 역시 東半부에 더욱 많다>는 假說에 대한 論證 몇가지와 관계되는 몇 地方의 風土를 말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濟州島 民謠의 謠別에 따른 地域別 分布 狀況에 대해서다.

그런데 이것은 序說的인 作業이요, 앞으로의 踏査와 考究에 따라 더욱 綿密히 檢討될 문제다.

【 註 】

- ① 延婚流……一名鬪雲在東二陪里三乙那開國時日本使者陪三神女來泊于此故名
(西紀1933年發行, 耽羅志)
- ② 巫虎岳……本里 安保洞 東方에 있으니 높이 351m.
母地岳……本里 境上에 있으니 높이 548m.
拘岳(개오름)……本里 九龍洞 境上에 있으니 높이 353m.
瀾洲山……本里 濼外洞 境上에 있으니 높이 325m. 小三角點이 있다.
百葉岳(세비오름)……本里 安保洞 境上에 있으니 높이 360m. 藥草가 多
産인 故로 命名했다. (淡水契刊, 耽羅誌)
- ③ 濟州道 統計年報에 따르면 1962年末 人口數는 4,091名
- ④ 年代로 봐서 山地浦, 朝天浦, 禾北浦……이 세 浦口 가운데 어느 浦
口가 더 일찍 開浦되었느냐는 알 수 없는 데로 山地浦(健入浦)도
濟州島 開門이 된 것은 近來인듯 하나 浦口 자체는 다음 記錄으로
보아 꽤 오랜듯 推測된다.
健入浦……在北門外俗伝高厚良宕朝新羅時遷泊于此(1933年刊 耽羅志)
- ⑤ 朝天鎮……城中有朝天館尉器車某或上有恣化亭即各倉宜阻疑廣牧吏李欠某
稱以雙程己亥牧使成允文重修改稱曰戀北(以下略)
- ⑥ 朝天里 居住 前 朝天面長 金亨彦氏의 말.
- ⑦ <계주도>誌 9號의 拙稿<濟州島民謡의 種類上 特色>參照